

대만 매체의 남녹(藍綠) 프레임 연구: TV토론프로그램(政論節目)을 중심으로¹⁾

이광수(국민대)

- I. 서론
- II. 대만 매체 남녹 프레임과 TV토론 프로그램 형성
- III. 대만 TV 토론 프로그램 사례 분석
- IV. 대만 TV 토론 프로그램 평가와 문제점
- V. 결론

I. 서론

대만의 언론 매체 시장은 1987년 계엄 해제와 함께 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 자유 조치를 시작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대만의 매체는 역사, 정치, 정체성의 차이에 따른 내성인과 외성인사이의 갈등, 통일과 독립에 대한 시각 차이, 국민당과 민진당 지지자의 대립, 양안관계와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정파적 프레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대만 매체는 보도 성향과 보도 태도에 따라 남녹(藍綠)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구도로 분류된다.

비록 대만매체는 1990년대 이후 정치 민주화로 인해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질적 측면에서도 기사 작성과 편집에 있어서 통일지향적인 남영 매체와 독립지향적인 녹영 매체 사이의 프레임의 차이가 분명하면서 대만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면서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남녹 프레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진행되는 매체의 여론형성은 상업적 경쟁의 심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편향성 강화, 구독률과 시청률 향상을 앞세우며 진행되는 과장, 축소, 왜곡, 비방, 폭로 등의 불공정 언론상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대만의 주요 매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제를 선점하거나 주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2000년 이전까지는 국민당 중심의 정치 유산의 영향에 따라 남영 매체가 우세를 차지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천수이볜 정부 이후 대만 중심 사관과 탈중국화 운동의 영향으로 친민진당, 독립지향적 성향의 녹영 매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현재 녹영매체는 자유시보(自由時報), 민시TV(民視), 삼립TV(三立電視), 년대TV(年代電視) 등이 있다. 정치토론프로그램을 통해 일단의 녹색입장에 치우친 패널을 출연시켜 국민당의 친중 입장과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을 비판하고, 또한 중국과의 통일보다는 대만 독립 지향적인 주장을 주로 한다.

반면에 남영매체는 연합보(聯合報), 중국시보(中國時報), 중천TV(中天電視), TVBS TV, 동삼TV(東森電視), 중앙통신사(中央通信社) 등이 있다. 이들 역시 녹영 매체의 주장이나 민진당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위주의 보도를 하면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이익을 강조하고 국민당을 지지하는 프레임을 주로 표방한다.

1) 이 글은 미완성본으로, 읽는 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대만에서 남쪽 매체는 ‘제4의 권력’으로서 대만 민중에게 자신의 프레임을 유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데, 간략히 세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첫째, 정당 및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전파시키려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의회, 총통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셋째, 대만 및 양안관계와 관련한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대만의 매체, 특히 TV 매체는 시의성 있는 사건이나 주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날의 뉴스 보도 및 시사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파적 시각에 따라 특정 정당 출신 정치가, 언론인, 학자 등을 활용하여 사건을 과장 또는 축소하거나 혹은 왜곡, 날조하면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고 한다. 보통 TV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정론프로그램은 정치성 있는 발언을 강하게 하는 패널을 여러 명 초청하여, 토크쇼 형태의 논쟁형 대화를 통해 운영되는데, 도중에 그림, 도표, 사진, 키워드를 추출하여 복잡한 정치현상을 쉽게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시청자 즉 대중에게 의식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처럼 비쳐진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뉴스(News)를 통해 세상을 보고 이해한다. 뉴스는 뉴스제작자들의 ‘선택(Selection)’과 ‘배제(Exclusion)’를 통해 독자 또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인식하는 세계는 뉴스를 가공하는 미디어(Media)의 특정한 시각 또는 의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뉴스 제작자의 보이지 않는 분석틀이 작용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프레임(Frame)이라 명명하는데, 프레임은 사회현상을 미디어가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독자의 이해와 수용에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틀짓기 효과(Framing Effect)’라고 한다. 현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프레임은 “수용자가 뉴스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양승목 2008, 219)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글은 미디어의 프레임링 효과에 의해 증폭되는 대만 미디어 특히 TV토론프로그램에서의 남쪽 대립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남쪽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TV 토론프로그램이며, 분석방법으로 토론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패널 구성, 토론 진행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미디어 프레임 연구 방법론인 형식적, 내용적 프레임 분석에 의한 것이다.

II. 대만 매체 남쪽 프레임과 TV토론 프로그램 형성

1. 대만 매체의 남쪽 대립 구도

1) 계엄시기: 당정군 3대 TV

계엄 해제 이전 대만 TV 는 당정군 권력 3부가 직접 관리와 운영 책임을 맡은 3대 방송국(老三台)의 과점체제였다. 즉 1962년 첫 번째로 설립된 대만전시공사(臺灣電視公司, 台視, TTV), 1969년 방송을 시작한 중국전시공사(中國電視公司, 中視, CTV), 1971년 개국한 중화전시공사(中華電視公司, 華視, CTS) 세 방송국이 계엄시기 주요 3대 방송국으로서 당정의 정책을 그대로 보도하고, 장제스 등 지도자의 언행을 찬양 고무하는 선전도구로 사용되었다.

2) 당정군 독점 퇴출과 민영화, 공영성 강화

1988년 계엄 해제 이후 정당활동 금지조치와 언론활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방송 민영화이 이루어졌다. 이후 적지 않은 민영방송 채널이 신규로 방송을 시작했다.

당정군 매체 퇴출운동은 1995년 ‘3대 TV 당정군 퇴출 대행진’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천수이볜 정부가 취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3년 12월 방송3법(광전3법)이 통과되어, “정부, 정당의 라디오와 TV 사업 투자를 금지하고, 정부, 정당은 반드시 광전 3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당정 업무인원은 반드시 6개월 이내 퇴출하거나 직무 해제를 한다.” 내용의 ‘당정군 독점 구도 종식’ 일정표가 공표되었다. 2005년 대만 행정원이 [무선 TV 사업 주식 처리 조례] 초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화시는 공공화 방향으로, 대시는 민영화 방향으로, 중시는 비(국민)당영화 방향으로 변경되어 갔다.

당정군 매체의 공영화와 민영화 흐름에 따라 녹영 매체의 등장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녹영 TV의 대표인 민간전민전시공사(Formosa TV, FTV)가 1993년 민진당 당원(蔡同榮, 李鎮源, 李應元)들에 의해 설립되어 대만의 네 번째 무선 TV방송국이 되었다. 또한 대만의 제5대 방송국인 공공전시(Public Television, PTS)는 1998년 [공공전시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TV 매체이다. 공시는 정부, 정당, 이익단체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 공영방송매체인데, 천수이볜 정부 시기 2006년 공영방송매체를 담당하는 별개의 기구인 대만 공공광보전시집단(公廣, Taiwan Broadcasting System, TBS)을 정부 출자 형태로 만들어, 공시와 화시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영국의 BBC, 미국의 PBS, 일본의 NHK와 같이 공공매체사업을 지향하도록 했다. TBS는 현재 국회방송과 객가 방송국도 관리하고 있다.

3) 남영의 TV 중점 투자 : 중시 인수합병

본래 당정군 매체에서 출발한 남영 매체는 리덩후이, 천수이볜 정부 시기의 언론 민영화와 공영화 흐름에 따라 퇴조하는 추세였지만, 2011년 중국에서 식품사업을 하던 왕왕집단이 중시 미디어를 인수하면서 전환점을 만들었다. 왕왕매체그룹(旺旺中時媒體集團)이 당시 2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던 중가네트워크(中嘉網路)를 인수합병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신문 중국시보(中國時報), 중시(中國電視公司), 중천TV(中天, CTI)와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고자 했다.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왕왕집단의 대만 매체의 인수는 대만 내부에서는 중국자본을 이용하여 중국시보, 중시, 중천TV 등의 매체를 통한 ‘매체 통전(통일전선)’을 진행한다고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반중인사 웬홍빙(袁紅冰)은 “중국은 계획적으로 대만 정치계, 학술계, 공상계 문화계, 매체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당과 대만 각계에 대규모 통전 방식으로의 침투를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의 통일파 인사 중 다수는 친중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台灣購港媒 再牽最严重统战事件, 大紀元, 2012-10-17)

2. 대만 TV 토론 프로그램의 형성

대만의 TV 토론 프로그램은 대화형 정론프로그램(政論節目)으로서 주로 정치적 이슈를 놓고서 남쪽 진영 인사들의 상호 공격과 방어형태로 이루어지는 토크쇼 형태의 토론프로그램이다.

1) TV 토론 프로그램의 시작

대만 TV(電視)의 토론프로그램의 역사는 계엄 해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계엄 이전시기의 토론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자의 언행을 전달하는 앵무새에 불과했다. 리

당후이 정부 시기 민주주의 발전이 시작된 이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3년 [유선전시법] 공포 이후, 대만 TV 채널 시장이 완전 개방, 토크쇼 형태의 정론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1993년 TVBS의 [2100 全民開講]의 전신인 [리타오 광장(李濤廣場)]이 첫 방송을 시작하여, 시청자 전화 참여 방식, 주제 관련 당사자와 토론자간의 직접 전화 연결 등의 방식을 통해 대중의 주목을 끌어내었다. 이후 시사성 주제의 토론 프로그램이 다수의 민영 방송국에서 시작되면서 TV 토론 프로그램은 '대만식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시사성 의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프로그램은 과거의 단순한 관료, 지시, 명령의 전달 혹은 전문가의 독단적인 정세분석에서 벗어나고, 토론주제, 토론형태, 토론자 구성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상업경쟁 구도에서 각 방송사의 주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현재도 각 방송사별로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 이른바 황금시간대에는 상당수의 TV 토론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유권자이기도 한 일반 시청자에게 전달되면서 여론 조성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2)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전

대만의 뉴스토크쇼 프로그램의 발전은 3 시기로 나뉘어진다. 제1기는 1984~1994로서 계엄 해제 전후 시기에 즈음하여, 점차 정치적 개방 분위기가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토크쇼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시기이지만 대중으로부터의 관심은 그다지 많이 받지 않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新聞眼], [國際展望], [有話要說]이었으며, 방송 횟수는 한 주에 1일 혹은 2일 정도 편성되는 수준에 그쳤다. 프로그램도 대부분 국내외 학자, 정부관료를 초대하여 정책정책에 대한 분석과 심층 토론을 하는 형태였다.

제2기는 1990년대 초 만년국회 해산, 비상국시회의 개최 등 정치민주화에 따른 개방이 심화되고, 점차 양당 대립과 대치되는 형세가 나타나면서, tv 뉴스토크쇼 프로그램에도 정치화 색채를 지니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뉴스 전달력과 여론 확산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녁 6시부터 10까지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었다. 1994년 [2100全民開講]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등 대중의 뉴스쇼 주목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대만을 제목으로 내건 [台灣心聲] 프로그램이 출발하면서 점차 대만 본토화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다.

제3기는 민진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4년차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기다. 대중의 언론관심이나 참여도도 계속하여 증가했지만, 뉴스토크쇼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 형태였다. 무수한 뉴스쇼 프로그램이 새로이 방송되고 유지되는 속에서 형식, 내용, 수준이 그다지 커다란 차이가 없는 상태였다. 방송시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황금시간대에 방송되었다. 과학적 진보를 통해 프로그램에는 첨단 방송기자재를 사용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 시기의 주요 프로그램은 [新聞龍捲風], [關鍵時刻] 등이 있다.

분석대상 TV 토론 프로그램은 2017년 현재 남녹 진영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각 2개씩 모두 4개의 프로그램으로 했다.

- 1) 남영 프로그램: 중시 中視 新聞深喉嚨 TVBS 少康戰情室
- 2) 녹영 프로그램: 민視 政經看民視 三立 新台灣加油

표1) 대만 11대 정치토론 프로그램(남영 6, 녹영 5)

통계 자료 출처: 직접 작성

정치성향	방송국	프로그램명	사회자	방송 현황	첫 방송 일시
녹영	三立新聞台	54新觀點	陈斐娟	월-금 21:55-0:00 2시간 주5일	
	三立新聞台	前進新台灣			
	三立新聞台	新台灣加油	廖筱君	월-금 20:30-21:55	
	民視新聞台	政經看民視	彭文正、 李晶玉	월-토 19:55-21:55	2016.8.22
	东森新聞台	關鍵時刻	刘宝杰	월-금 21:55-0:05	长期高居同 时段收视率 第一位
남영	中天新聞台	夜間打權			2016.7.14
	中天新聞台	大政治大爆卦			2016.6.13
	中天新聞台	新聞深喉嚨	平秀琳	월-금 20:00-21:30	2015.8.31
	中天新聞台	了解與互信 兩岸一定旺			
	中天新聞台	新聞龍捲風	戴立綱		2012.6.25
	T V B S	少康戰情室	趙少康	월-금 20:00-21:00	2014.3.31
	T V B S 56台	国民大会	于美人(于 耘婕)	월-금 20:00-21:00	2016.6.6. 재 개국

표2) 66개 프로그램 중 4대 정론프로그램 5일간 시청률 순위 및 시청률 (2017.12.04.-12.08)

통계 자료 출처: http://www1.xkm.com.tw/hr/ht_top.asp

순위/ 시청률	2017.12.04.	12.05	12.06	12.07	12.08
中天:新聞深喉嚨	11/ 1.09	16/ 1.04	14/ 1.01	16/ 0.99	17/ 0.99
TVBS:少康戰情室	38/ 0.72	35/ 0.76	17/ 0.93	31/ 0.83	39/ 0.73
民視:政經看民視	41/ 0.69	41/ 0.68	48/ 0.56	41/ 0.69	38/ 0.73
三立:新台灣加油	45/ 0.6	43/ 0.65	66/ 0.43	40/ 0.7	71/ 0.48

대만 TV 시청률 계산법: 1% 는 7.5만 명(5만 가구×1.5만)이 시청한 것으로 간주. 대만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 통계에 의하면 대만 총가구수 820만호, 2013년 TV 보급가구 500만호, 보급률 60%, 가구당 1.5인 시청한 것으로 산정.(wikipedia 收視率 참조)

Ⅲ. 대만 TV 토론 프로그램 사례 분석

1. 주제 선정

표3) TV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 설정 및 정치의제 관련 특성 분포

주제 설정	%	정치의제 관련 특성	%
정치	46	정부정책 및 시정 평가	22
사회	10	정당정치과정	25

민생소비	3	양안관계	6
경제	5	대륙사무(중국업무)	1
취약계층	3	민족 정체성	3
교육	1	국방	13
매체	1	외교	1
과학기술	5	국제사무	6
이색뉴스	16	정치 사건	23
환경생태	2		
기타	8		

출처: 唐士哲, 建立電視時事議題討論(政論)節目觀察評鑑指標成果報告, 2013

2. 패널 선정

1) TV 토론 프로그램 패널 신분 분류(탕스저, 2012)

참여자 신분	참여인수	백분비율
매체 기자	538	44.2
정치평론가	233	19.2
현직 입법위원	91	7.5
학자 전문가	78	6.4
현.시의원	64	5.7
민간사회단체 대표	69	5.3
전업인사(전문직)	60	4.9
전직 정부관료	29	2.3
전직 입법위원	23	1.9
정당대표(대변인 등 당직자)	21	1.7
현직 정부관료	6	0.5
기타	5	0.4
합계	1,217	100%

* TVBS, 三立, 中天, 民視, 東森, 公視 6개 채널 12개 토론프로그램 대상으로 1개월 동안의 방송분 조사 결과(12개 프로그램의 주당 방송시간 합산은 91시간)

2) 6개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 배경 비교((탕스저, 2013))

	2100全 民開講	新台灣 加油	新聞面 對面	頭家來 開講	關鍵時 刻	有話好 說
	TVBS	三立	民視	年代	東森	公視
매체 종사자	27	21	24	31	31	6
학자	19	10	17	4	8	24
민의대표(입법 위원)	11	39	15	46	-	6
정부관료	10	-	-	-	-	3
정당원	4	14	4	15	-	1
NGO 회원	9	6	4	-	3	26
문화 종사자	5	2	5	-	5	1
교육 종사자	-	-	-	-	3	5
기업인	2	2	-	-	3	1
전문가	-	6	29	4	36	12
민중	-	-	-	-	3	12

기타	3	-	2	-	8	3
----	---	---	---	---	---	---

출처: 唐士哲, 建立電視時事議題討論(政論)節目觀察評鑑指標成果報告, 2013

3) 스타패널(名嘴) 현상의 명암(明暗)

TV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하는 신분은 다양한 가운데, 기자, 정치인, 전문가(학자) 등 세 부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대만 등 중화권에서는 패널을 ‘밍쭈이’라는 용어를 통해 희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한어사전에는 라디오, TV 방송의 아나운서, 앵커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 특정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칭하는 것이다. TV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여론주도층으로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수입(시간당 평균 12만원)을 벌어들이고 정치가 혹은 학교 등지로 진출하기도 한다. 패널은 보통 1차로 자료 수집, 2차로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를 설득하고자 한다.

그러나 TV 토론 프로그램 경쟁 심화, 패널 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시청자로부터 무관심이나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패널간, 패널과 방송사간, 패널과 문제제기당한 당사자 사이에 일방적 주장이나 비방, 왜곡으로 인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이유로 사법적 쟁의로 넘어가기도 한다. (王一晴 台灣“名嘴”現象面面觀 兩岸關係 2017.06)

IV. 대만 TV 토론 프로그램 평가

1. 긍정적 평가

대만의 TV 토론 프로그램의 출현은 정치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TV 토론은 공공영역의 정치 정보 및 개인 영역의 소통언어를 융합하여 정치사회와 민중생활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중요한 교량역할을 한다.(Dahlgren, 1996; Tolson, 2006)

일반인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열정을 향상시키면서, TV 토론프로그램은 고정적으로 장시간 시청하도록 하고 잠재적 의식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즉 좋은 TV 토론프로그램은 의제 발굴과 토론을 통해 사건 내부에 감춰져 있는 의도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상호 토론, 교류,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민주정치의 시민 참여 확보와 대중의 감시, 감독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2. 부정적 평가

한편 대중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있어서 TV 토론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업화 추세에 따른 매체 경쟁 심화로 인해 TV 토론프로그램은 시청률 경쟁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공적 토론장으로서의 이상을 희생하고, 소수의 전문 패널(매체평론가, 정치평론가)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도 다양하다. 주요 문제점은 1) 내용의 부정확성과 불공정성 문제 2) 스타패널(밍쭈이)의 폭로성 토론 3) 공평원칙 위배 4) 매체 사용화(私用化) 이다.

TV 토론프로그램은 대중이 정치토론에 참여하는 공간으로서 방송국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모델은 개인 또는 제작 방송사의 이익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대만의 일부 TV 토론프로그램은 특정 시기 소속 방송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로 전락하기도 한다. 2012년 왕왕그룹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인수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대자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하여, 왕왕그룹 산하 중천뉴스의 TV 토론프로그램은 입법원 심사기간동안 스타패널을 출연시켜 수일간 지속적으로 인수합병건을 비판하던 민진당 입법위원과 반대측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당 입법위원도 왕왕중시그룹의 매체 사용화를 비판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 TV언론이 매체제작과 편집 권한이 경영관리계층과 분리되어 있지 못한 현실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밖에 TV 토론프로그램은 지나친 정치화로 인해, 남북 진영 논리에 따른 특정 정당이나 정치성향에 대한 지지성향이 노골적으로 편향된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편향성은 대만 내부의 주요 모순의 근원인 족군 정제성과 연관되어 양안관계에서도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대만의 TV 토론프로그램은 단순히 방송국의 프로그램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나 정제성 형성이나 변화에 일정정도 영향을 주는 여론 형성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대만 연구자들은 대만의 현재 정치행위 과정에서 다원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여론 형성과 전달을 위한 합리적 도구로서 전문 영역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정당의 정책 형성과 집행, 여론 수렴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의 TV 토론프로그램의 ‘스타패널 현상’은 정치 설득의 도구적 이성화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정보와 판단 근거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는 여론 형성의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 현재 남북 대결 구도가 부각되고 있는 정당정치 구도에서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정당간의 상호경쟁을 기초로 발전하는 참여형 민주주의정치체제에서 정보의 투명성은 민주정치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Balkin, 1998)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결고리로서 다원적, 이질적 매개과정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대만의 TV 토론프로그램과 스타패널은 여론 전달자로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현재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토론문화가 활발한 대만의 언론환경에서 일부 언론과 여론 주도층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여론 독점에 따른 과장, 편향, 비방 등 불공정한 여론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만 TV 토론 프로그램은 남북 매체 사이의 정치적 입장차이 뿐만 아니라 상업적 경쟁의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면서 쌍방에 대한 비판이 격화되기도 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패널의 과도한 언사를 통한 자기주장의 강조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왜곡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언론에 의한 불공정한 여론 형성은 정치세력,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향으로 인해, 대만식 정경언(政經言) 유착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만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민주화 발전을 통하여 유교문화권역에서 비교적 안정되면서도 개방적인 사회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월 16일 대만에서는 급진주의적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시대역량당의 입법위원(민의대표) 황귀창(黃國昌)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부결되었다. 소위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한 황귀창에 대

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지역 주민들이 주민 추천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소환투표를 진행했던 것이다. 2016년 차이잉원 정부에서는 커밍아웃을 선언한 IT 전문가가 대만 내부의 큰 반발 없이 장관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일국양제 방식을 통한 대륙 중국의 통일 압박에 맞서 비대칭적 역학 구도 속에서 체제와 제도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대만으로서의 다원적, 개방적, 민주적인 사회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대만의 TV 토론프로그램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劉嘉薇, 2016, 《臺灣民眾的媒體選擇與統獨立場》, 臺北: 五南。

劉嘉薇, 2017, 〈網路統獨的聲量研究: 大數據的分析〉, 《政治科學論叢》, 71期: 113-166。

<http://ntupsr.s3.amazonaws.com/psr/wp-content/uploads/2017/05/02-4-%E5%8A%89%E5%98%89%E8%96%87.pdf>

劉嘉薇與張福建, 2016, 〈民眾對媒體多元的認知: 社經地位的鴻溝〉, 《國家發展研究》, 15卷2期: 1-42。

唐士哲, 建立電視時事議題討論(政論)節目觀察評鑑指標成果報告, 國立中正大學, 2013

唐士哲, 電視政論與政/媒互動實踐初探, 傳播研究與實踐 第2卷第1期, 2012年1月

吳宗憲的憤慨與台灣電視產業的出路 2015-09-29 21:04

<http://www.peoplenews.tw/news/9ede8b9f-1706-4f69-9ec6-08e8ebf201c7>

兩岸半官方政治論壇 深綠要去 2013年09月13日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30913001039-260301>

李丰, 台湾电视新闻评论栏目模式是否适用于大陆同类栏目——从两岸电视新闻评论员之异同说起, 改革与开放 2010.20

张彬 精确 深入 活泼——关于做好对台湾广播评论节目的思考 中国广播 2010.02

何博仪 浅谈台湾电视“名嘴文化” 南方电视学刊 2013.01

李峰 两岸关系与电视评论——央视《海峡两岸》传播策略研究 台湾研究 2005.03

王一晴 台湾“名嘴”现象面面观 两岸关系 2017.06